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

2006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임재생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

지도교수 이 희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임재생

임재생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2월 일

주심 철학박사 이 정 화 (인)

위원 교육학박사 이 경 화 (인)

위원 철학박사 이 희 영 (인)

목 차

Abstract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6
3. 용어의 정의	6
II . 이론적 배경	8
1. 리더십 생활기술	8
가. 리더십 생활기술의 개념	8
나. 리더십 생활기술의 하위 영역	11
다. 리더십 생활기술의 관련 변인	12
2. 부모의 양육태도	17
가. 부모 양육태도의 개념	17
나.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	19
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24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리더십 생활기술	25

III. 연구 방법 29

- 1. 연구 대상 29
- 2. 측정 도구 29
 - 가. 부모 양육행동 척도 29
 - 나.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 31
- 3. 자료 분석 33

IV. 결과 해석 및 논의 34

- 1. 예비분석 34
 - 가. 부모의 양육행동간 상관 및 차이 검증 34
 - 나. 남녀 학생간 부모의 양육행동 차이 검증 37
- 2. 부모의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 38
 - 가. 부모 양육행동과 남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 39
 - 나. 부모 양육행동과 여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 40
- 3. 부모의 양육행동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41
 - 가. 부모 양육행동이 남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41
 - 나. 부모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43
- 4. 논의 45
 - 가. 부모 양육행동의 상관 및 차이 검증 46
 - 나. 부모의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 47
 - 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48

V. 요약, 결론 및 제언 52

1. 요약 52

2. 결론 54

3. 제언 55

참고문헌 56

부록 62

표 목 차

<표 II-1> 리더십 생활기술의 개인적 특성 변인	13
<표 II-2> 리더십 생활기술의 관련 변인 분석	14
<표 III-1>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31
<표 III-2>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32
<표 IV-1> 부모간 양육행동의 상관분석	35
<표 IV-2> 부모의 양육행동간 차이 검증	36
<표 IV-3> 남학생, 여학생간 부모의 양육행동 차이 검증	37
<표 IV-4> 남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 하위영역별 상관분석	39
<표 IV-5> 여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 하위영역별 상관분석	40
<표 IV-6> 부모 양육행동이 남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42
<표 IV-7> 부모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44

Abstract

The Relation 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Leadership Life Skills of Middle School Students

Lim, Jae Saeng

Educ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 rearing behavior and leadership life skills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obtain this purpose, the following study problems were established.

Firs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life skill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rearing behavior?

Second, what influence does parental rearing behavior that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ze have on leadership life skills?

To conduct this study, 31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and were collected. However, 28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by excluding dishonest answers.

To measure leadership life skills, this study used leadership life skills Measurement developed by Choi(2001) and reconstructed by Park(2002). To measure parental rearing behavior, this study used Parental Rearing

Behavior Measurement developed by Heo(2000).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0.0 version). To solve the study problem 1,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to solve the study problem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adership life skills were related with parental rearing behavior that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ze. That i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leadership life skills and parental rearing behaviors such as affection and monitoring. By contrast,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leadership life skills and parental rearing behaviors such as parents' neglect, and father's abuse.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leadership life skills and father's reasoning in case of boys and mother's reasoning in case of girls.

Second, parental rearing behavior that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ze has an effect on their leadership life skills. For boys, father's rearing behaviors influence on all aspects of leadership life skills and have more influences on them than mother's rearing behaviors. On the contrary, for girls, they are influenced by mother's rearing behaviors more than father's. Furthermore, while boys are negatively influenced by fathers' abuse in their 'learning to learn skills' and 'skills in working with groups', girls are negatively influenced by mothers' neglect in 'skills in working with groups', 'learning to learn skills', 'ability to relate to others skills' and 'communication skills'. This shows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For both boys and girls, however, parents' affection has the most influential parenting factor and parents' monitoring is the secondly influential factor that explains their leadership life skill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과 주위세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생활현장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생활기술(life skills)분야이다. 1960년대부터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생활기술은 대체로 지식과 기술 사용능력, 커뮤니케이션, 건강유지, 리더십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Pigg & Meyers, 1980).

이러한 생활기술 중 리더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되어지는 리더십 생활기술은 커뮤니케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조직관리기술, 인간관계기술, 학습능력기술, 자기이해기술 및 그룹활동기술로 구성된다(Morris, 1996; Seevers & Dormody, 1995; Wingenbach, 1995). 따라서 리더십 생활기술은 경영이나 관리와 관련된 기술이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으로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청소년들이 현재의 사회에 적응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문제를 예견·방지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역할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기술이라 하겠다.

21세기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은 차세대 주역으로서 매우 중요한 미래지향적 교육의 의미와 위상을 지닌다. 21세기 청소년상의 비전은 문화적 감성,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봉사와 협력정신, 모험심과 개척정신, 국제감각을 가지고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하는 청소년으로 제시되고 있다(평생교육백서,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전문가들은 청소년에 대한 문제 중심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긍정적 청소년 개발을 위한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김진화, 2000; 허남순·이칭찬, 2003). 이들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이나 감소가 청소년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문제행동은 일시적이고 실험적인 행동으로 건전한 청소년들도 경험하게 되는 기본적 요소이며, 최적의 발달을 위한 요소라고 간주한다. 청소년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고 긍정적 청소년개발을 이루기 위해 기존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별 과업의 설정보다는 건전한 성인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발달과제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이채식, 2005).

긍정적 청소년개발에 있어 청소년리더십은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제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리더십개발은 위험행동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성인기를 위한 발판의 도약이 된다(김진화, 2003; van Linden & Fertman, 1989). 따라서 최근 청소년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성장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리더십 생활기술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각 개인의 리더십 생활기술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질문은 최근에 많은 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온 연구 주제로 이에 관련된 변인은 개인적 특성에 근거하여 인구학적 변인, 사회심리학적 변인, 부모관련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과 거주지역(Boyd, 1991; Mickinley, Birkenholz & Stewar, 1993; Miller, 1991), 연령(Mickinley, Birkenholz & Stewar, 1993; Morris, 1996), 학력(Miller, 1991)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사회심리학적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최창욱, 2001; Miller, 1991; Miller & Bowen, 1993), 자기효능감(이채식, 2005), 영향 인물(Morris, 1996)이 있는데, Morris는 리더십에 영향을 준 인물로 부모, 선후배, 이웃 어른, 지도사 및 교

사 순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부모관련 변인으로는, 부모 생존여부, 어머니의 학력, 직업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Miller, 1991; Miller & Bowen, 1993). 아버지의 학력, 직업, 성적은 Miller & Bowen(1993)의 연구에서 유의함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최창욱(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에 있어서는 유의하였으나, 부모 생존여부, 학력은 유의함을 보이지 못했다.

이처럼 많은 변인들이 리더십 생활기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그 중에서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아온 변인이 부모 및 부모를 매개한 변인이었다. 그러나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연구 중, 외국의 연구는 국내와의 문화적 차이로 결과만을 놓고 비교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 연구로는 리더십 생활기술 변인 분석(박선경, 2002; 이채식, 2005 최창욱, 2001)과 프로그램 개발(김정대, 2001) 연구가 있다.

최창욱(2001)은 4H에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박선경(2002)은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생활기술 관련변인을 규명하였고, 이채식(2005)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기술을 촉진하는 요인들 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김정대(2001)는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한 리더십 생활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긍정적 청소년개발을 위한 관점의 전환과 청소년 리더십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성과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최창욱(2001)이 부모관련 변인을 부모 생존 여부, 학력, 직업으로 설정한 점과 박선경(2002)이 배경변인에서 부모 변인을 제외한 점은 청소년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채식(2005)은 사회환경적 맥락으로서 가족, 학교, 또래친구 등과 청소년활동,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의 변인들 간의 구조를 밝혀 보다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부모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 부모 지지 중 ‘정서적 지지’를 척도로 사용한 것은 Miller(1991)가 부모 변인으로 교육 수준과 직업, Miller & Bowin(1993)이 부모 생존, 교육수준, 직업을 제시한 것과 질적으로 차별화된 점이 있었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erk, 1994). 왜냐하면 자녀는 주로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오성심·이종승, 1982).

일반적으로 부모의 수용, 따뜻함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극단적인 지배, 제한 처벌은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부적의 관계를 보이는데 일치하고 있다(Walters & Stinnett, 1971; Walters, 1980).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부모와 관련한 리더십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데(김순자, 2000; 박주희, 2000; 최종임, 2005), 이들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순자(2000)는 부모 학력에 따른 가정의 자극환경 차이가 아동의 사회정서를 발달시킨다고 보고하였고, 최종임(2005)은 부모 양육행동을 자녀지도로 보아, 부모 리더십 개념 인식에 따른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정서를 발달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리더십을 내적 통제, 다른 아동과의 원활한 상호관계, 유치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으로 척도를 삼거나(김순자, 2000), 또래관계 능력(박주희, 2000), 사회 정서 발달(최종임, 2005)을 리더십으로 간주하여 청소년의 생활기술로서의 리더십과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척도를 삼은 것이 많은데, 자

녀의 정의적 측면에서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보고가 있으며(김성연, 1981; 이숙, 1988), 어린 아동일수록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자신과 부모 양육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변화 과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감성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문제해결 기술을 배우게 되며, 개인 및 사회의 많은 자원들이 청소년의 발달과업 수행을 결정짓는 요소(Miller, 1991)가 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연구는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리더십이 특정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생활기술임을 인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리더십 생활기술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주희, 2000; 최종임, 2005)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리더십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깊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므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안현지, 1999),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의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고(오미경, 2005),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손석한 외,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남녀별 부모의 양육태도가 리더십 생활기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부모의 양육태도가 리더십 생활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이 지각한 남녀별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중학생이 지각한 남녀별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양육 행동

Berk(199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종승(1982)은 부모나 대리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내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형태이며, 외현적·내현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나. 리더십 생활기술

Miller(1976)는 리더십 생활기술을 실제 생활 속에서 리더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되어지는 생활기술의 자기 평가적이고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창욱(2001)의 연구를 재인용하여 리더십 생활기술이란 경험학습을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유용하고,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커뮤니케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조직관리기술, 인간관계기술, 학습능력기술, 자기이해기술, 그룹 활동기술 등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리더십 생활기술

가. 리더십 생활기술의 개념

리더십 생활기술의 개념은 생활기술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리더십 생활기술에 대한 논의는 생활기술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되어진다.

1) 생활기술의 개념

생활기술의 개념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Adkins & Rosenberg(1965)는 뉴욕 YMCA의 청소년을 위한 훈련자료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최초의 생활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Boyd, 1991). Himsl(1973)는 생활기술을 최초로 정의하여 “생활기술이란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응용되는 가장 적절하고 책임 있는 문제 해결 행동”이라 하였다(Boyd, 1991, 재인용).

Miller(1976)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유용하고 실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그 능력에는 사고(thinking), 행동(doing), 감정(feeling)이 있다고 하였으며, Pigg & Meyers(1980)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기술, 건강유지, 리더십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포함하는 실용적 기술의

개발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Mullen(1981)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통된 핵심 수단들 즉, 인간관계기술, 문제해결기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였다.

Weatherford, D & Weatherford, C(1985)는 기존의 생활기술 개념을 정리하여 능력(competency), 대처(coping), 공헌(contributory)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능력은 자신과 주위세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 계발, 대처는 대인관계기술 계발을 통한 정체성 확립, 공헌은 사람들의 상황적·개인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분배나 사회적 공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개념이 생활기술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Morris, 1996).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김정대(2001)는 생활기술을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호의존적이며 복합적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유용하고 필요한 공통된 핵심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2) 리더십 생활기술의 개념

Weatherford, D & Weatherford, C(1985)를 비롯하여 생활기술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생활기술의 하위 영역 중 특히 공헌(contributory)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Miller(1976)는 『Leader/agent's guide : Leadership Life Skills』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생활기술의 영역에 리더십을 접목시켜 리더십 생활기술을 “실제생활 속에서 리더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되어지는 다양한 생활기술의 자기 평가적이고(self-assessed), 조직과 관련된(organization-specific)부분”이라고 하였다. 실제 생활 속에서라는 의미

는 청소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로 하고 사용해야 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리더십 기능이란 Weatherford, D & Weatherford, C(1985)의 생활기술 하위영역 중 공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생활기술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Miller의 개념 정의 이후 하위 영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내용을 기초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Boyd(1991)는 리더십 생활기술을 “상호의존적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커뮤니케이션능력, 대응능력, 인간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Morris(1996), Seevers & Dormody(1995), Wingenbach(1995) 등은 Miller(1976)의 정의와 유사하게 리더십 생활기술을 실제 생활 속에서 리더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되어지는 생활기술의 자기 평가적이고 조직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의하고, 사회체제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과정으로서 개인의 자질이라기보다는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이라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리더십 생활기술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는 대체로 생활기술의 하위 영역 중에서 리더십과 관련한 자아(self)에 대한 기술과 조직이나 집단과 관련된 기술들을 강조하고 있다 (Morris, 1996).

최창욱(2001)은 리더십 생활기술을 “경험학습을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유용하고,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박선경(2002)은 “실제 생활 속에서 리더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되어지는 생활기술로서 커뮤니케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조직관리기술, 인간관계기술, 학습능력기술, 자기이해기술, 그룹 활동기술 등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채식(2005)은 “일상생활에서 원만하게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학습을 해나가며, 리더로서 역할 수행을 해나가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리더십 생활기술은 조직의 관리나 기업에서의 경영과 관련된 관리기술로서의 리더십이 아닌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으로 청소년들이 직면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현재의 사회에 적응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문제를 예견·방지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역할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기술이라 하겠다.

나. 리더십 생활기술의 하위 영역

리더십 생활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최초의 연구는 1975년 Miller가 수행한 『4-H 리더십을 위한 생활기술(Life skills for 4-H leadership roles)』 연구이다. Miller는 4-H회원들의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의 구성 요인으로 의사결정, 관계성, 학습, 조직관리, 자기이해, 그룹활동과 커뮤니케이션(1976년 추가)의 7가지 하위 영역에 총 60개의 리더십 생활기술 문항을 확정하였다. 리더십 생활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Miller의 7가지 하위영역, 60개 문항의 리더십 생활기술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문항을 뽑아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새롭게 발전시켜 연구를 수행하였다(최창욱, 2001).

Miller(1975, 1976) 이후 Carter & Spotanski(1989)는 추진력, 응집력, 생산성, 성취력, 그룹활동에 대한 태도, 개인적 리더십, 자기확신, 협력, 시민의식, 자기개발 등 10개의 하위 영역 74문항을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Boyd(1991), Boyd, Herring & Brier(1992)는 그룹활동, 자아이해,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의사결정 등 5가지 하위 영역 21문항을 사용하였다.

Morris(1996), Seevers & Dormody(1995), Wingenbach(1995) 등은 커뮤니케이션기술(communication skills), 의사결정기술(decision-making skills), 조

직관리기술(management skills), 인간관계기술(ability to relate to others skills), 학습능력기술(learning to learn skills), 자기이해기술(skills in understanding self), 그룹활동기술(skills in working with groups)의 7가지 하위 영역 30문항을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로 사용하였다.

Astroth(1995)는 의사결정, 책임성, 인간관계기술, 봉사정신, 친화력기술의 5가지 하위 영역, Ward(1996)는 탐구정신, 의사결정, 인간관계, 기록유지, 대중연설, 자아존중감, 책임성 등 7가지 하위 영역을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Iowa State 4-H Youth Development Center(1999)에서는 학습능력, 의사결정, 자원의 현명한 사용, 책임있는 시민의식,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인정, 리더십, 운영기술, 건강한 생활스타일의 9가지 하위 영역 45문항을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김정대(2001)는 『청소년 참여를 통한 리더십 생활기술 프로그램 개발』에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리더십 생활기술의 요인으로 집단 특수적 요인인 ‘전문적 기술’과 집단 보편적 요인인 ‘책임과 신뢰’, ‘갈등해소 능력’, ‘공사구별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Morris(1996), Dormody & Seevers(1995), Wingenbach(1995)의 척도를 바탕으로 박선경(2002)이 재구성한 척도를 재인용하여 커뮤니케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조직관리기술, 인간관계기술, 학습능력기술, 자기이해기술, 그룹활동기술 등 7개 영역 30문항을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로 사용하였다.

다. 리더십 생활기술의 관련 변인

외국의 주요 연구에서 리더십 생활기술 관련 변인을 추출하여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1>과 같다.

<표Ⅱ-1> 리더십 생활기술의 개인적 특성 변인

연구	개인적 특성 변인
Miller(1991)	성별, 가족상황, 부모의 교육수준, 인종, 학력, 부모의 직업, 거주지, 자아존중감
Boyd(1991)	연령, 성별, 인종, 거주지
Boyd, Herring & Briers(1992)	연령, 성별, 인종, 거주지
Mickinley, Birkenholz & Stewar(1993)	연령, 성별, 결혼여부, 자라난 곳, 현거주지, 학력
Miller & Bowen(1993)	연령, 인종, 부모생존,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직업, 현거주지, 학년, 자아존중감
Wingenbach(1995)	연령, 거주지, FFA 활동기간 중 거주지, 성별, 출생순위, 성적
Dormody & Seevers(1995)	자아존중감, 연령, 성별, 거주지, 인종
Morris(1996)	연령, 성별, 거주지, 인종, 성적, 출생순위, 영향인물
Iowa State 4-H Youth Development Center(1999)	연령, 학년, 성별, 거주지, 인종

· 출처: 최창욱(2001),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1.

<표Ⅱ-1>에 제시된 바와 같이, Miller(1991)는 성별, 가족 상황, 부모의 교육수준, 인종, 학력, 부모의 직업, 거주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Boyd(1991) & Boyd, Herring & Briers(1992)는 연령, 성별, 인종, 거주지, Mickinley, Birkenholz & Stewar(1993)는 연령 성별, 결혼여부, 자라난 곳, 현거주지, 학력, Miller & Bowen(1993)는 성별, 인종, 현거주지, 부모생존,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학년, 자아존중감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개인적 특성 변인을 인구학적 변인, 사회심리적 변인, 부모관련 변인으로 구분하여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Ⅱ-2>와 같다.

<표Ⅱ-2> 리더십 생활기술의 관련 변인 분석

연구	인구학적 변인									사회심리학적 변인		부모관련 변인				
	성별	연령	학력	성적	거주지역	성장지역	결혼여부	인종	출생순위	자아존중감	영향인물	부모생존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모직업
Boyd(1991)	○	×	-	-	○	-	-	×	-	-	-	-	-	-	-	-
Miller(1991)	○	-	○	-	○	-	-	○	-	○	-	×	×	○	×	○
Boyd, Herring & Briers(1992)	×	×	-	-	×	-	-	×	-	-	-	-	-	-	-	-
Mickinley, Birkenholz & Stewar(1993)	○	○	×	-	○	○	×	-	-	-	-	-	-	-	-	-
Miller & Bowen(1993)	×	-	×	-	×	-	-	○	-	○	-	○	×	○	×	○
Wingenbach(1995)	○	×	-	○	×	×	-	-	×	-	-	-	-	-	-	-
Dormody & Seevers(1995)	○	×	-	-	×	-	-	×	-	×	-	-	-	-	-	-
Morris(1996)	×	○	-	-	×	-	-	×	×	-	○	-	-	-	-	-

* : p < .05 ○ : 유의 차가 있음, × : 유의 차가 없음, - : 해당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음

· 출처: 최창욱(2001),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4-35.

먼저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은 Boyd(1991), Miller(1991), Mickinley, Birkenholz & Stewar(1993), Wingenbach(1995), Dormodyd & Seevers(1995)의 연구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은 Mickinley, Birkenholz & Stewar(1993), Morris(1996)의 연구에서 유의하였다. 학력(Miller, 1991), 성적(Wingenbach, 1995), 도시/농촌에 따른 거주지역(Boyd, 1991; Miller, 1991; Mickinley, Birkenholz & Stewar, 1993), 성장지역(Mickinley, Birkenholz & Stewar, 1993), 인종(Miller, 1991; Miller와 Bowen, 1993)이 리더십 생활기술과 유의함을 보였으나 결혼여부, 출생 순위는 유의함을 보이지 못했다.

다음으로 사회심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Miller(1991), Miller & Bowen(1993)의 연구에서 유의하였다. 영향인물은 Morris(1996)의 연구에서 유의하였는데, 부모, 선후배, 이웃어른, 지도사 및 선생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부모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부모 생존여부는 Miller & Bowen(1993)의 연구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은 Miller(1991), Miller & Bowen(1993)의 연구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학력, 직업은 유의함을 보이지 못했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더십 생활기술은 성별, 연령, 학력, 성적, 거주지역, 성장지역, 인종, 자아존중감, 영향인물, 부모 생존여부, 모의 학력과 직업 등의 변인에서 유의하였으나, 결혼여부와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과는 유의함을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창욱(2001)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자아존중감, 4-H 참여 횟수, 기간, 참여 정도, 4-H 성취기대수준 변인들

이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생활기술 수준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고, 연령·학력이 높고 부모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와 자아존중감이 높고, 4-H 참여 횟수·기간이 많으며, 4-H 참여 정도·성취기대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리더십 생활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거주지, 학교 성적, 부모 생존여부, 부모의 학력 변인들은 리더십 생활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둘째, 박선경(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성격, 친구관계, 단체활동참여, 임원활동 변인들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창욱(2001)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조사 대상자의 연령과 지역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고 외향적인 청소년, 친구가 많고 단체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임원활동을 했던 청소년이 리더십 생활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형제관계별 특성에서는 혼자인 청소년의 리더십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명이나 3명 이상인 청소년들과의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셋째, 이채식(2005)의 연구에서는 가족, 학교, 친구 등과 청소년활동,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의 변인들 간의 구조를 밝혀 보다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청소년활동은 리더십 생활기술에 유의한 직접-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지지 및 친구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교사 지지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청소년 리더십기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태도

가. 부모 양육태도의 개념

인간은 사회생활의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와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성장, 발달하게 된다. 아동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게 되는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고,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와 가정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자아를 보호하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 (박주희, 2001).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도자이며 교육자이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나름대로 독특한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지도하고 있다(박정희, 2002). 부모의 자녀지도는 리더십의 한 형태이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개념의 인식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소희, 2003).

한편,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시기별로 변환되어 왔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엄격한 훈육 및 체벌이 가장 효율적인 양육태도라고 여겼었다. 18세기에 들어 소아의학 및 심리학의 발달은 양육태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켰고 부모의 태도변화도 수반되었다. 프로벨은 어린이의 최초의 교육장소인 가정에서의 교육을 중요시하여 ‘어머니의 노래와 사랑의 노래’를 저술하여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시도하였다. 특히 1910년 이후 Freud를 비롯한 정신분석학이 심리학과 정신의학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교육학, 심리학, 의학, 가정학, 그리고 사회사업분야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양육행동이라는 말

과 양육태도는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었는데 1970년대부터 추상적인 양육태도 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박성연, 1990; 이숙, 1988). 또한 Kagan(1971)이 지적하였듯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구체적 행동과 대상에 대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추상적인 태도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대개의 경우 부모의 태도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으로 반영되므로 행동으로 묘사된 진술문을 통해 측정하여 왔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 또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환경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정의와 유형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정인, 2000).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Fishbein(1975)은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나 아동을 양육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문화양식이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가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 하였으며, Berk(199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부모나 대리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이라고 하였고, 김재은(1984)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며 부모의 관찰 가능한 행동과 자녀의 인식에 대한 반응 형태로 표명되어 가는 것이라 하였다.

박범실(1987), 권윤정(1999)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이끄는 자(leader)와 따르는 자(follower)로 인식하였다. 또

한 이소희(2003), 최종임(2005)은 부모 양육행동을 자녀 지도로 보아 리더십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개념의 인식이 자녀의 행동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으로서 자녀에 의하여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적, 정서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한 김재현(2000)의 정의를 인용하여 양육행동을 “자녀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형태이며, 외현적·내현적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부모나 자녀의 요소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학자에 따라 그 분류 방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최초로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s(1949)로서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에 따른 부모의 양육유형을 살펴보면 지배형의 경우에는 부모가 부모의 의지를 아동의 의지에 앞세운다. 이런 경우 아이들은 복종적, 수동적, 의존적이며 예의가 바르게 보이는 반면 반항적, 투쟁적, 자기 징벌적인 면과 불안을 강하게

보이며, 자주성과 창조성이 결여된다.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공격성, 잔인성, 무관심, 자기비하,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 등의 이상 성격을 형성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한다. 그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거부적도 아니고 지배적도 아니며, 과보호적도 아니고 복종적도 아닌 중간을 취하는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헌한 바 있으나 그 이론은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한 임상사례에 많이 의존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만 설명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전한 태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한편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Bell과 함께 제작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검사를 통해서 Symonds(1949)와는 다른 양육태도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30여 년 동안의 기록에 의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두 개의 축, 즉 애정-거부의 축과 자율-통제의 축으로 분류하였다.

Schaefer(1959)의 부모 양육 태도 유형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적-자율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적, 민주적, 수용적, 협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태도를 갖는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한다. 둘째,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익애형의 양육 태도로서 애정을 주면서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태도이다. 이러한 부모는 아동의 행동 범주를 결정하고 자녀의 어려움도 부모에 의해 극복된다고 믿으며,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새로운 탐색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반응, 습득의 기회를 축소시킨다. 셋째, 거부-자율적 태도는 방임적인 양육 태도로서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동시에 자녀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

하도록 내버려둔다. 넷째, 거부적-통제적 태도는 독재적인 양육 태도로서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자녀의 행동을 처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태도이다. Schaefer(1959)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수용을 주고 가족들의 표준적인 행동 분위기에서 스스로의 자유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녀가 타인을 따르고 신뢰하면서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주장이 강하고 우호적이며,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도 전통적인 방식을 수용하면서 창조적인 발달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Baumrind(1966)는 양육태도 유형을 독재주의적 태도, 허용주의적 태도, 권위주의적 태도로 분류하였는데, 세 가지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재적인 통제를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부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복종하게 하는데 때로는 체벌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자녀에게 지켜야 할 규칙과 행동규범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미리 설정해 놓고 절대적인 행동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에 맞추려 한다. 부모의 말은 곧 법이며 부모의 행위가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것임을 믿도록 한다. 둘째, 허용적인 태도는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며 자율성을 고무한다.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자녀와 상의해서 행동에 대한 제한이나 방법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을 가능한 한 스스로 규제할 수 있게 하고 통제를 피하며, 외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복종하도록 권장하지 않는다. 셋째, 권위적 태도는 독재적 태도와 허용적 태도의 장점을 잘 조합한 태도로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녀가 자율성을 갖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이상적인 설득, 명백한 권위, 또는 심리적 강화 등을 이용하여 자녀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러한 부모는 의사소통을 권장하고 부모가 행하는 방식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 주며,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자녀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청한다. 따라서 독재적 태도, 허용적 태도, 권위적 태도 중에서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양육태도는 권위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로 정원식(1974)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대칭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를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의 4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하위변인별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비성취는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를 격려, 요구하며 박력과 끈기, 주의력을 집중시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개방-폐쇄는 주위의 사물이나 타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며, 미지의 사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기대하는 정도를 말한다. 셋째, 친애-거부는 가정의 구성원이 서로 접촉하기를 원하며 상호간에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협동하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해 주며 권위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넷째, 자율-타율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대하는 정도를 말한다.

한중혜(1980)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수용-적대·거부, 민주·자율-권위·통제의 두 개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영숙(1989)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 익애적 태도, 모순·불일치태도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한편, 허묘연(2000)은 그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요인별로 ① 감독 ② 합리적 설명 ③ 비일관성 ④ 과잉기대 ⑤ 과잉간섭 ⑥ 학대 ⑦ 방치 ⑧ 애정으로 정의하였다. 각 요인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감독 :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방과 후에 누구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② 합리적 설명 :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어떤 행동이 용납되고 용납 안 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과 훈육적인 처벌을 하며,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동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태도가 포함된다.

③ 비일관성 :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같은 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는 것이나, 기분 내키는 대로 자녀를 대하는 행동을 말한다.

④ 과잉기대 :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최고가 되라고 강조하고 성공이나 출세를 중요시하며, 지적인 성취에 열성적인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⑤ 과잉간섭 :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태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면 자녀의 욕구보다는 부모의 기준이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 간섭이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⑥ 학대 :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인 손상이라는 결과가 남는 양육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위와 그 결과로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사소한 잘못을 했거나, 때로는 이유 없이 상처가 남거나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한다.

⑦ 방치 :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훈육을 위한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 있고 정서적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⑧ 애정 :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칭찬을 잘해 주고, 껴안아 주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한 위로를 해 주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는 행동을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도자이며 교육자로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이 자녀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부모와의 관계는 지속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묘연(2000)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의 8개 영역으로 분류한 방식에 따라 부모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인간은 사물이나 사실을 존재하는 객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지각양식과 과거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Combs & Snygg, 1959).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자녀에게 있어서 실제의 양육태도와 달

리 여러 가지로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를 비교한 연구(Katkocasky & Good, 1967)에서도 자녀의 내적 통제성을 예언하는 것으로는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보다는 자녀 쪽에서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관련이 많다고 밝혔다.

김성연(1981)은 자녀의 정의적 측면에서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들이 진술한 양육태도보다도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임을 보고하였다. 즉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은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다르게 지각되며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양육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녀 입장에서는 실제 행해지는 부모의 양육태도보다는 자녀 자신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동이 주변의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서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논의되고 있다(이숙, 1988).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서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녀의 성격형성에는 실제의 양육태도 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 의해 오랫동안 관찰되어져서 형성된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로서 비교적 안정된 것이고, 실제의 양육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리더십 생활기술

인간은 사회생활의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와 최초로 인간관계를

뻗으면서 성장, 발달하게 된다. 태내에서부터 시작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삶을 위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동일시의 대상이 되면서 최초의 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부모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격형성이나 지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자녀는 주로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오성심·이종승, 1982).

이와 같이 자녀가 행동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 인식에 따른 행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는 실제적인 목표를 세운 후 자녀를 지도하여야 하고, 자녀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모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안혜경, 1998).

박범실(1987)은 어머니가 합리적인 지도를 하고,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면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의 사회적 활동성과 협조성 등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수용, 따뜻함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극단적인 지배, 제한 처벌은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일치하고 있다(Walters & Stinnett, 1971; Walters, 1980).

양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결속시키는 것은 내용보다는 관계이다. 부모는 자녀를 이끌어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도록 돕는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인생을 향해하면서 역사를 잇게 한다. 이 과정을 배가 항

해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부모인 성인은 선장, 즉 리더이며, 부모를 따르는 자녀는 팔로우인 것이다(최종임, 2005).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부모와 관련한 리더십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데, 이들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김순자(2000)는 유아기의 가정환경 변인은 유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모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최종임(2005)은 부모 양육행동을 자녀지도로 보아, 부모 리더십개념 인식에 따른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정서를 발달시킨다고 밝혔다. 이들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정환경의 중요성, 특히 부모양육방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리더십을 내적 통제, 다른 아동과의 원활한 상호관계, 유치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으로 척도를 삼거나(김순자, 2000), 또래관계 능력(박주희, 2000), 사회 정서 발달(최종임, 2005)을 리더십으로 간주하여 청소년의 생활기술로서의 리더십과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어린 아동일수록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자신과 부모 양육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변화 과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감성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문제해결 기술을 배우게 되며, 개인 및 사회의 많은 자원들이 청소년의 발달과업 수행을 결정짓는 요소(Miller, 1991)가 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연구는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리더십이 특정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생활기술임을 인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T 중학교 3학년 학생 286명(여학생 140명, 남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10부를 배부하여 305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를 제외하고 총 286부(여학생 140, 남학생 146)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간 정도이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자기 보고식의 질문지 형태로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리더십 생활기술을 측정하는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가. 부모 양육행동 척도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감독, 방치, 비밀관성 등 8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묘연(2000)이 보고한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68에서 .86이었다.

각 요인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애정’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하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적 설명’은 부모가 양육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대’는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이 남기는 결과로, 총 6문항이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으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부모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행동이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고,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고, ‘방치’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기준에 일관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각 문항이 측정하는 하위 양육행동과 비슷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역 채점 문항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구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와 각 하위요인별 구체적인 문항번호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	
			부	모
애정	6, 14, 22, 30, 34, 42	6	.86	.84
합리적 설명	3, 11, 19, 27, 41	5	.84	.79
학대	7, 15, 23, 31, 35, 39	6	.87	.79
과잉간섭	4, 12, 20, 28, 37, 40, 43	7	.76	.83
과잉기대	5, 13, 21, 29, 33, 38	6	.77	.78
감독	1, 9, 17, 25	4	.77	.76
방치	8, 16, 24, 32, 36	5	.75	.72
비일관성	2, 10, 18, 26	4	.55	.55

나.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

중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경(200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커뮤니케이션기술 4문항, 의사결정기술 5문항, 조직관리기술 4문항, 인간관계기술 5문항, 학습능력기술 4문항, 자기이해기술 5문항, 그룹활동기술 3문항 등 7가지 하위영역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Dormody와 Seevers(1995), Morris(1996), Seevers, Dormody와 Clason(1995), Wingenbach(1995) 등이 사용한 것을 최창욱(2001)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박선경(2001)이 중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척도로서 Cronbach's α 값이 .89라고 보고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구한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의 신뢰도와 하위요인별 구인, 문항수 및 문항번호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하위요인	구인(construct)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
커뮤니케이션 기술	감정 표현	1	4	.53
	타인의 말 경청	2		
	타인에게 칭찬과 감사표현	3		
	적절한 유머 구사	4		
의사결정 기술	요구결정	5	5	.70
	목표설정	6		
	우선순위 결정	7		
	대안선택	8		
	대안고려	9		
조직관리기술	조직 구성원에 책임 위임	10	4	.29
	명령보다 요청	11		
	변화 수용 자세	12		
	조직 구성원 신뢰	13		
인간관계 기술	진실한 마음	14	5	.74
	타인에 호의	15		
	타인의 가치 인정	16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17		
	타인과의 화합	18		
학습능력 기술	효과적 정보사용	19	4	.69
	학습태세	20		
	문제해결능력	21		
	합리적 사고	22		
자기이해 기술	긍정적 자아개념	23	5	.71
	책임 있는 태도	24		
	실수 수습 능력	25		
	융통성 발휘	26		
	명확한 자기주장	27		
그룹 활동기술	집단 성원의 요구 고려	28	3	.63
	집단 성원의 요구 수용	29		
	집단 분위기 조성	30		

예비 분석 결과 조직관리기술의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10.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부 양육행동, 모 양육행동,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조직관리기술의 신뢰도가 .29로 낮게 나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며(안현지, 1999), 남녀 학생별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다(손석한 외, 2001; 오미경, 2005)는 보고에 따라 남녀별 부모의 양육행동간 상관 및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관이 낮게 나오므로 부와 모를 따로 분석하였다.

2) 남학생, 여학생간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차이가 있으므로 남녀를 따로 분석하였다.

셋째, 남녀별 부모의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남녀별 부모의 양육행동이 리더십 각각의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비분석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남녀 학생 별도로 부모간 양육행동의 상관 및 차이 검증을 실시한 후, 부모 각각의 남녀 학생간 양육행동 차이를 검증하였다.

가. 부모간 양육행동의 상관 및 차이 검증

남녀별 부모간 양육행동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부모간 양육행동의 상관 분석

		모								
양육행동 남/여		애정	합리	학대	간섭	기대	감독	방치	비일관성	
부	애정	남	.65**	.42**	-.30**	-.35**	-.19*	.32**	-.48**	-.26**
		여	.60**	.39**	-.29**	-.30**	-.14	.30**	-.46**	-.29**
	합리	남	.51**	.61**	-.24**	-.33**	-.22**	.32**	-.46**	-.23**
		여	.45**	.65**	-.37**	-.35**	-.26**	.35**	-.47**	-.35**
	학대	남	-.32**	-.23**	.65**	.35**	.22**	-.22**	.41**	.30**
		여	-.43**	-.25**	.60**	.33**	.13	-.33**	.38**	.30**
	간섭	남	-.28**	-.38**	.44**	.61**	.34**	-.23**	.40**	.38**
		여	-.42**	-.35**	.28**	.77**	.42**	-.26**	.42**	.42**
	기대	남	-.12	-.19*	.25**	.27**	.62**	-.17*	.28**	.17*
		여	-.15	-.09	.16	.26**	.70**	-.11	.28**	.19*
	감독	남	.38**	.41**	-.05	-.20*	-.05	.65**	-.35**	-.19*
		여	.40**	.33**	-.15	-.20*	-.08	.60**	-.43**	-.09
	방치	남	-.42**	-.42**	.35**	.39**	.30**	-.28**	.75**	.35**
		여	-.53**	-.44**	.20*	.35**	.24**	-.36**	.74**	.31**
	비일관성	남	-.31**	-.35**	.31**	.38**	.27**	-.12	.35**	.60**
		여	-.40**	-.32**	.38**	.37**	.37**	-.31**	.43**	.57**

*p <.05, **p <.01

남학생에서는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이 부기대-모애정, 부감독-모학대, 부감독-모기대, 부비일관성-모감독인 경우와 여학생에서는 부애정-모기대, 부기대-모합리, 부기대-모학대, 부기대-모감독, 부감독-모학대, 부감독-모기대, 부감독-모비일관성인 경우, 부모간 양육행동의 상관이 낮게 나와 자료 분석시 부모 별로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간 차이 검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Ⅳ-2> 부모의 양육행동간 차이 검증

		N	M	SD	t	p	
남	애정	부	143	17.32	4.05	1.74	.085
		모	143	17.80	3.78		
	합리	부	144	13.75	3.73	.73	.466
		모	144	13.56	3.19		
	학대	부	144	10.03	3.94	2.42	.017
		모	144	9.42	3.15		
	간섭	부	143	15.71	3.93	4.25	.000
		모	143	17.02	4.37		
	기대	부	143	14.94	3.59	.34	.736
		모	143	15.03	3.73		
	감독	부	143	10.29	2.75	9.09	.000
		모	143	12.01	2.64		
	방치	부	140	8.76	2.75	3.00	.003
		모	140	8.29	2.53		
	비일관성	부	143	9.15	2.12	.34	.736
		모	143	9.20	2.30		
여	애정	부	137	18.30	4.03	1.35	.180
		모	137	18.70	3.57		
	합리	부	136	14.33	3.45	.28	.784
		모	136	14.40	3.33		
	학대	부	138	8.96	3.42	.38	.707
		모	138	8.86	3.07		
	간섭	부	136	14.39	4.49	4.33	.000
		모	136	15.53	4.57		
	기대	부	139	13.28	3.87	2.12	.036
		모	139	13.82	3.82		
	감독	부	139	10.81	2.96	9.40	.000
		모	139	12.79	2.52		
	방치	부	138	8.25	3.07	4.52	.000
		모	138	7.43	2.68		
	비일관성	부	138	8.42	2.44	.12	.906
		모	138	8.40	2.19		

남학생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대, 간섭, 감독, 방치인 경우와 여학생에서는 간섭, 기대, 감독, 방치인 경우, 부모간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남녀 학생간 부모의 양육행동 차이 검증

남학생, 여학생간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 차이 검증을 통해서 살펴 본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 남학생, 여학생간 부모 양육행동 차이 검증

		N	M	SD	t	p	
부	애정	남	143	17.32	4.05	1.96	.047
		녀	143	17.80	3.78	1.96	.047
	합리	남	144	13.75	3.73	1.50	.134
		녀	139	13.56	3.19	1.51	.133
	학대	남	144	10.03	3.94	2.31	.022
		녀	139	9.42	3.15	2.31	.022
	간섭	남	143	15.71	3.93	2.55	.011
		녀	138	17.02	4.37	2.54	.012
	기대	남	143	14.94	3.59	3.73	.000
		녀	140	15.03	3.73	3.72	.000
	감독	남	143	10.29	2.75	1.60	.111
		녀	140	12.01	2.64	1.60	.111
	방치	남	141	8.76	2.75	1.51	.132
		녀	140	8.29	2.53	1.51	.133
	비일관성	남	143	9.15	2.12	2.66	.008
		녀	139	9.20	2.30	2.66	.008

		N	M	SD	t	p	
모	애정	남	146	18.30	4.03	1.90	.059
		녀	139	18.70	3.57	1.90	.058
	합리	남	147	14.33	3.45	2.21	.028
		녀	137	14.40	3.33	2.21	.028
	학대	남	147	8.96	3.42	1.47	.144
		녀	139	8.86	3.07	1.47	.144
	간섭	남	147	14.39	4.49	2.80	.005
		녀	138	15.53	4.57	2.80	.006
	기대	남	146	13.28	3.87	2.73	.007
		녀	140	13.82	3.82	2.73	.007
	감독	남	146	10.81	2.96	2.47	.014
		녀	140	12.79	2.52	2.47	.014
	방치	남	144	8.25	3.07	2.74	.007
		녀	139	7.43	2.68	2.74	.007
	비일관성	남	146	8.42	2.44	3.05	.002
		녀	139	8.40	2.19	3.06	.002

부의 양육행동이 합리, 감독, 방치인 경우와 모의 양육행동이 학대인 경우를 제외하고 남녀 학생간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부모로부터 애정, 간섭, 기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남학생은 부의 학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2. 부모의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

예비분석 결과 남녀 학생에 따라 부모간의 양육행동이 다르게 나타나, 연구문제 1인 「남녀별 부모의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별 부, 모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리더십 생활기술 하위영역 점수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부모 양육행동과 남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

먼저 남학생에서 부모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 남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 하위영역별 상관분석

양육 행동		리더십 생활기술					
		1	2	3	4	5	6
애정	부	.34**	.22*	.21*	.19*	.29**	.13
	모	.20*	.22**	.12	.22**	.27**	.03
합리적 설명	부	.23**	.25**	.11	.22**	.27**	.06
	모	.02	.10	.01	.11	.12	-.07
학대	부	-.16	-.21*	-.14	-.20*	-.24**	-.24**
	모	-.12	-.15	-.12	-.10	-.12	-.03
과잉간섭	부	-.09	-.10	-.09	-.10	-.09	-.03
	모	-.01	-.02	-.08	-.07	-.16	.11
과잉기대	부	-.01	-.02	-.01	-.04	-.14	-.03
	모	-.00	-.05	-.08	-.02	-.14	.03
감독	부	.07	.15	.04	.24**	.15	.15
	모	.05	.19*	-.03	.27**	.18*	.11
방치	부	-.01	-.08	-.06	-.08	-.26**	-.07
	모	-.04	-.15	.06	-.12	-.20*	-.03
비일관성	부	-.05	-.11	-.16	-.20*	-.11	.05
	모	-.02	-.09	-.13	-.09	-.11	.09

*p <.05, **p <.01

주) 리더십기술 1=커뮤니케이션기술, 2=의사결정기술, 3=인간관계기술,
4=학습능력기술, 5=자기이해기술, 6=그룹 활동기술

남학생의 경우, 부의 양육행동이 애정인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자기이해, 합리적인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감독인 경우에는 학습능력기술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대인 경우에는 자기이해, 그룹활동 기술, 방치인 경우에는 자기이해기술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인 경우에는 의사결정, 학습능력, 자기이해기술, 감독인 경우에는 학습능력기술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부모 양육행동과 여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

다음으로 여학생에서 부모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IV-5>와 같다.

<표IV-5> 여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 하위영역별 상관분석

양육행동		리더십 생활기술					
		1	2	3	4	5	6
애정	부	.14	.23**	.13	.11	.23**	.22**
	모	.18*	.34**	.07	.11	.31**	.22**
합리적 설명	부	.12	.13	.21*	-.01	.10	.18*
	모	.14	.22**	.12	.05	.17*	.25**
학대	부	-.07	-.21*	-.01	-.11	-.11	-.24**
	모	-.07	-.16	.02	-.07	-.13	-.12
과잉간섭	부	-.02	-.17	.06	.04	-.06	-.04
	모	-.08	-.21*	-.03	.03	-.10	-.03
과잉기대	부	.03	-.02	-.15	.14	.01	.03
	모	.01	.16	-.11	.26**	.08	.16
감독	부	.16	.19*	.20*	.13	.21*	.27**
	모	.04	.29**	.15	.14	.25**	.23**
방치	부	-.19*	-.21*	-.23**	-.10	-.22**	-.27**
	모	-.21*	-.34**	-.14	-.17*	-.31**	-.28**
비일관성	부	-.04	-.02	-.14	-.02	-.08	-.06
	모	-.06	.04	-.21*	.17*	.00	-.06

*p <.05, **p <.01

주) 리더십기술 1=커뮤니케이션기술, 2=의사결정기술, 3=인간관계기술,
4=학습능력기술, 5=자기이해기술, 6=그룹 활동기술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애정이 의사결정, 자기이해, 그룹활동기술에, 부모의 감독, 모의 합리가 그룹활동기술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모의 과잉기대가 학습능력기술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부모의 방치가 자기이해, 그룹활동기술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학대는 인간관계나 그룹활동 등 사회적 관계 형성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3. 부모의 양육행동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행동 8개 하위영역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리더십생활기술 각 하위영역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단,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남녀 학생별, 부모간 양육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남녀별, 부모별로 구분하였다.

가. 부모 양육행동이 남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학생의 리더십 각각의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IV-6>과 같다.

<표IV-6> 부모 양육행동이 남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투입변인	R	R ²	R ² 변화	β	t	P
부	커뮤니케이션 기술	애정	.364	.133	.133	.364	4.53	.000
		방치	.436	.190	.057	.309	3.07	.003
	의사결정기술	합리	.268	.072	.072	.268	3.22	.002
	인간관계기술	애정	.225	.051	.051	.225	2.67	.009
	학습능력기술	감독	.259	.067	.067	.259	2.75	.002
		학대	.310	.096	.029	-.172	2.05	.042
	자기이해기술	애정	.307	.094	.094	.307	3.74	.000
	그룹활동기술	학대	.230	.053	.053	-.230	2.73	.007
		비일관성	.283	.080	.028	.182	2.00	.048
	모	커뮤니케이션 기술	애정	.236	.056	.056	.236	2.85
의사결정기술			애정	.234	.055	.055	.234	2.83
인간관계기술		—	—	—	—	—	—	—
학습능력기술		감독	.277	.077	.070	.265	3.23	.002
자기이해기술		애정	.265	.070	.070	.265	3.27	.002
그룹활동기술		—	—	—	—	—	—	—

남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을 영역별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 중, 간섭, 기대 행동을 제외한 6가지 행동에서 리더십 생활기술 영역을 전체적으로 정적, 부적으로 약 3%~13% 정도 설명하고 있다. 영역별로 1-2가지의 하위 행동들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의 애정 행동은 자기이해기술에 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애정과 방치는 커뮤니케이션기술에 각각 13%, 6%의 설명력을 보임으로써 부의 양육행동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여기서 부의 방치 행동이 남학생의 커뮤니케이션기술에 6%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과 비일관성 행동이 그룹활동기술에 3%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은 남학생의 적응력을 높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모의 양육행동은 애정, 감독 행동이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자기이해기술, 감독이 학습능력기술에 6%~8%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공통적으로 부모의 애정이 커뮤니케이션, 자기이해기술에, 감독이 학습능력기술에, 부의 합리 행동이 의사결정기술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인 설명력을 보인 것은 학대 행동으로 학습능력, 그룹활동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부모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리더십 각각의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IV-7>과 같다.

<표IV-7> 부모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중속변인	투입변인	R	R ²	R ² 변화	β	t	P
부	커뮤니케이션 기술	방치	.172	.029	.029	-.172	1.96	.048
	의사결정 기술	감독	.203	.041	.041	.203	2.37	.019
	인간관계 기술	방치	.227	.051	.051	.227	2.66	.009
	학습능력 기술	—	—	—	—	—	—	—
	자기이해 기술	애정	.227	.051	.051	.227	2.67	.009
	그룹 활동기술	감독	.287	.082	.082	.287	3.42	.001
		학대	.332	.110	.028	-.172	2.03	.045
모	커뮤니케이션 기술	방치	.185	.034	.034	-.185	2.15	.033
	의사결정 기술	감독	.312	.098	.098	.312	3.75	.000
		기대	.383	.146	.049	.221	2.72	.008
		애정	.460	.212	.065	.284	3.25	.001
	인간관계 기술	비일관성	.222	.049	.049	-.222	2.60	.011
	학습능력 기술	기대	.265	.070	.070	.265	3.14	.002
		방치	.356	.126	.056	-.247	2.88	.005
	자기이해 기술	애정	.303	.092	.092	.303	3.63	.000
	그룹 활동기술	방치	.287	.082	.082	-.287	3.42	.001
기대		.355	.126	.044	.218	2.55	.012	

여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부의 양육행동이 리더십 생활기술 영역에 약 1%~8% 정도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인 것은

감독 행동으로 그룹활동, 의사결정, 애정은 자기이해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애정과 관심이 여학생의 건전한 자아개념,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의 학대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그룹활동기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기술 전 영역에 걸쳐서 3%~10% 정도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 양육행동보다 모 양육행동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애정, 감독, 기대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일관성, 방치 행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모의 방치는 그룹활동, 학습능력,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기술에 유의미한 부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의 관계를 규명해봄으로써 리더십이 청소년의 중요한 성장요인임을 인식시켜 리더십 생활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부모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부모 생존 여부, 학력, 직업(최창욱, 2001), 가족체계 유형(오윤선, 2000)을 변인으로 하거나 아동 대상의 연구에서 가정환경을 변인으로 한 연구(김순자, 2001)가 있다. 또한 부모 양육태도를 변인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한 측면만을 다루거나(박주희, 2000), 부모를 함께 묶어서 연구하거나(최종임, 2005), 연구대상이 유아나 초등학생인 경우(김순자,

2001; 박주희, 2000; 최종임, 2005)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리더십 생활기술의 관계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별, 남녀 학생별로 나누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 양육행동의 상관 및 차이 검증

먼저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간에 상관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에서는 부기대-모애정, 부감독-모학대, 부감독-모기대, 부비일관성-모감독인 경우와 여학생에서는 부애정-모기대, 부기대-모합리, 부기대-모학대, 부기대-모감독, 부감독-모학대, 부감독-모기대, 부감독-모비일관성인 경우, 부모간의 양육행동의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대, 간섭, 감독, 방치인 경우와 여학생에서는 간섭, 기대, 감독, 방치인 경우, 부모간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남녀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부의 양육행동이 합리, 감독, 방치, 모의 양육행동이 학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녀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안현지, 1999)와 남녀 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다(손석한 외, 2001; 오미경, 2005)는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간 양육행동에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천태복(200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학생은 부모로부터 애정, 간섭, 기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남학생은 부의 학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부모로부터 애정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한 점은 손석한 외(2001)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과잉간섭과 과잉기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점은 여아들이 양육태도의 모든 차원에서 남아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오성심·이종승(1982), 오미경(2005)의 연구나 남아선호 사상이 남학생에게 과잉기대, 과잉간섭으로 나타난다고 추론한 손석한 외(2001)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자녀가 부모의 태도를 받아들일 때 그들의 심리적 장, 또는 행동적 환경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태도와 반드시 일치될 수 없다는 최영희(2004)의 보고에 기초해 볼 때, 여학생이 부모의 기대나 간섭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기인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나. 부모의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남녀 학생 모두 부모 양육행동이 애정인 경우가 가장 광범위하게 유의미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부 애정이 커뮤니케이션, 자기이해, 모 애정이 의사결정, 학습능력, 자기이해기술, 여학생의 경우, 부모 애정이 의사결정, 자기이해, 그룹활동기술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부 합리는 남학생에게, 모 합리는 여학생에게 유의미하며, 부모의 감독은 남학생의 학습능력기술, 모의 과잉기대는 여학생의 학습능력기술과 유의미하였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 부모의 과잉기대가 광범위하게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의 방치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 자기이해기술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부모의 방치가 자존감을 낮추어 건전한 자아개념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학대는 부에게서 발견되며 남녀 학생 모두에게 인간관계나 그룹활동 등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사회적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가 온정적이고 권위적인 양육을 할수록 아동은 또래 및 친구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덜 하는 반면에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의 아동은 또래 및 친구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것으로 보고한 Dekovic & Janssen(1992)의 연구결과와 부모의 수용, 따뜻함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극단적인 지배, 제한 처벌은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부적의 관계를 보이는데 일치하고 있다고 보고한 Walters & Stinnett(1971), Walters (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박범실(1987)과 김정아(1990)는 어머니가 합리적인 지도를 하고,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면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의 사회적 활동성과 협조성 등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 손석한 외(2001)는 부모의 신체적 학대, 거부, 방임, 과잉통제, 과잉기대, 비밀관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모의 애정, 합리, 감독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다양한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모의 과잉기대가 여학생의 학습능력기술과 유의미한 본 연구결과는 과잉기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손석한 외(200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상반된다.

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행동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 양육행동 중, 간섭, 기대 행동을 제외한 6가지 행동에서 리더십

생활기술 영역을 전체적으로 정적,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생활기술 영역 중에서 부의 양육행동이 가장 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자기이해기술과 커뮤니케이션기술 영역으로, 애정 행동이 가장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한편, 부의 방치 행동이 남학생의 커뮤니케이션기술에, 비일관성 행동이 그룹활동기술에 유의미한 정적 설명력을 보인 것은 학대 행동이 학습능력, 그룹활동기술에 부적인 설명력을 보인 것과 대비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의 학대가 남학생에게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떨어뜨려 학습능력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방치, 비일관성 행동은 남학생의 사회적 적응력을 높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부모의 과잉기대가 남학생에게 광범위하게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모 양육행동은 애정과 감독 행동이 유의미한 정적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공통적으로 부모의 애정이 커뮤니케이션, 자기이해기술에, 감독이 학습능력 기술에, 부의 합리 행동이 의사결정기술에 유의미한 정적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한계설정’, ‘온정·합리적’ 지도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김정아(1990)와 권윤정(199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애정이 남학생의 정체감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고, 행동에 적절한 한계를 정해주는 부모의 관심이 학습능력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모의 합리적 지도와 설명이 의사결정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학생의 경우는, 부의 감독 행동이 그룹활동, 의사결정기술에, 애정은 자기이해기술에 유의미한 정적 설명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애정과 관심이 여학생의 건전한 자아개념,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의 학대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그룹활동기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의 아동은 또래 및 친구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것으로 보고한 Dekovic & Janssen(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모의 양육행동은 생활기술 전 영역에 걸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습능력기술은 모의 양육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잉기대가 정적 설명력을, 방치가 부적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모의 애정, 감독, 과잉기대가 유의미한 정적 설명력을 보이는 반면, 비밀관성, 방치 행동이 부적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모의 방치는 그룹활동, 학습능력,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기술에 유의미한 부적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부의 방치가 남학생의 커뮤니케이션기술에 유의미한 정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과 모의 방치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 부모의 과잉기대가 남학생에게 광범위하게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학생들이 아동기부터 양육적이고 관계지향적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부모와의 애착, 특히 모와의 애착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남녀 학생 모두 부모 양육행동이 애정, 감독인 경우 리더십 생활기술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부모의 방치, 부의 학대는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을 보인다. 남학생은 부의 합리, 여학생은 모의 합리적 행동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 학습능력기술에 있어서는 남학생은 부모의 감독, 여학생은 모의 과잉기대가 유의미하였다.

둘째, 남학생의 경우 부 양육행동이 리더십 기술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모양육보다 리더십 생활기술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모 양육행동이 리더십 기술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며 부양육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는 부의 학대 행동이 학습능력, 그룹활동기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모의

방치 행동이 그룹활동, 학습능력,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기술에 부정적 영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남녀 학생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남녀 학생 모두 부모의 애정, 감독 행동 순으로 리더십 생활기술 영역을 광범위하게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성장요인인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된 변인을 밝혀내기 위해 청소년을 둘러싼 가장 직접적인 양육환경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리더십 생활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부모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남녀별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남녀별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총 310부를 배부하여 305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를 제외하고 총 286부(여학생 140, 남학생 146)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자기 보고식의 질문지 형태로서 리더십 생활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최창욱이 개발한 것을 박선경(2002)이 재구성한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양육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10.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는데, 리더십 생활기술 하위 요인 중 조직관리기술의 신뢰도가 .29로 낮게 나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간, 남녀 학생간 상관분석 및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관이 낮게 나와 부와 모, 남녀 학생을 따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별 부모의 양육행동과 리더십 생활기술은 관계가 있었다.

남녀 학생 모두 부모 양육행동이 애정, 감독인 경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애정인 경우가 가장 광범위하게 유의미하며, 부의 합리는 남학생에게, 모의 합리는 여학생에게 유의미하며, 부모의 감독은 남학생의 학습능력기술, 모의 과잉기대는 여학생의 학습능력기술과 유의미하였다. 반면 남녀 학생 모두 부모의 방치는 자기이해기술과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을 보이며, 특히 학대는 부에게서 발견되며 남녀 학생 모두에게 인간관계형성, 그룹활동기술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치나 학대가 자녀의 사회적 관계형성이나 정체감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남녀별 부모 양육행동은 중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친다.

남학생의 경우 부 양육행동이 리더십 기술 전 영역, 모 양육은 인간관계, 그룹활동기술을 제외한 네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 양육행동이 모 양육보다 학습능력기술을 제외한 다섯 영역에 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모 양육이 리더십 기술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며 부 양육은 학습능력기술을 제외한 다섯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 양육이 부 양육보다 그룹활동기술을 제외한 다섯 영역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부모가 같고, 학습능력기술은 모의 양육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 부모의 애정 행동이 리더십 생활기술 영역을 광범위하게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부의 학대 행동이 학습능력, 그룹활동기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모의 방치 행동이 그룹활동, 학습능력,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기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기초하여 내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별 부모의 양육행동과 중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은 관계가 있다. 즉, 남녀 모두 부모 양육행동이 애정, 감독인 경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부모의 방치, 부의 학대는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을 보인다. 남학생은 부의 합리, 여학생은 모의 합리적 행동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

둘째, 남녀별 부모의 양육행동은 중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영향을 준다.

남학생의 경우 부 양육행동이 리더십 기술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모양육보다 리더십 생활기술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모 양육행동이 리더십 기술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며 부양육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는 부의 학대 행동이 학습능력, 그룹활동기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모의 방치 행동이 그룹활동, 학습능력,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기술에 부정적 영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남녀 학생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남녀 학생 모두 부모의 애정, 감독 행동 순으로 리더십 생활기술 영역을 광범위하게 높게 설명하고 있다.

3.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이들과 특성을 달리하는 집단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각에만 의존해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였으나, 양육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과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가 평정한 양육행동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은 개인적 특성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발달하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성격 특성, 자아개념 등 리더십 생활기술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김성연(1981).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과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자(2001).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과 리더십간의 관계 분석.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6권 2호, pp. 5-23.
- 김영숙(1989).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옥(2005). 청소년 발달단계와 리더십 생활기술과의 관계.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대(2001). 청소년참여를 통한 리더십 생활기술 프로그램 개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화(2000). 청소년지도사 자기주도학습의 관련변인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2권 제1호, pp. 113-130.
- 김진화(2003). 청소년위원과 리더십개발. 2003년도 전국청소년위원 연수 ‘청소년 리더십개발 및 자치활동 역량강화’ 자료집, 한국청소년리더십센터.
-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재현(200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윤정(1998).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실(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경(2002). 청소년의 생활기술로서의 리더십 분석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1990).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와 또래 지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2002). 부모의 자녀교육 방향 및 양육행동이 자녀 심리·사회성 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석한 외(2001). 청소년기 문제 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회지, 제40권 제4호, pp. 605-615.
-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 지능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경(1998). 부모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간의 관계. 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pp. 1-15.
- 오윤선(2000). 가족체계 유형의 청소년 적응 및 학교생활 리더십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승(1982). 한국교육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채식(2005). 청소년 리더십기술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 분석. 서울대학

-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인(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74). 교육환경론. 서울: 배영사.
- 천태복(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임(2005). 학부모의 리더십 개념인식과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창욱(2001).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남순·이칭찬(2003).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요인의 규명과 판별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15호, pp. 171-203.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kins, W., & Rosenberg, S.(1965) TRY: Training resources for youth. Brooklyn: Training Resource for Youth, Inc.
- Astroth, K. A.(1996). Leadership in Nonformal Youth Groups: Does Style Affect Youth Outcome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34(6), [On-line]. Available :<http://www.joe.org/joe/1996december/rb2.html>.
- Baumrind, D.(1966). Effect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behavior.

- Child Development, 37, 887~907.
- Berk, L. E.(1994). Child Development(3rd ed.) Mass.: Allyn and Bacon.
- Boyd, B. L.(1991). Analysis of 4-H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life skill development in Texas 4-H club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 Boyd, B. L., Herring, D. R. & Briers, G. E.(1992). Developing Life Skills in Youth,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30(4), [On-line]. Available: <http://www.joe.org/joe/1992winter/a4.html>.
- Carter, R. I., & Spotski, D. R.(1989). Perceptions of leadership and personal development of selected high school students in Iowa.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0(4), 31-34, 41.
- Combs, A. W., & Snygg, D.(1959).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N.Y.: Harper & Brothers.
- De'kovic, M., & Janssen, J. M. A. M.(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Fishbein, M & Aizen, I. B.(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 Addison-Wesley.
- Himsl, R.(1973). Life skills: A course in applied problem solving, in Readings life skills. V. W. Mullen(Ed.). Train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on. Saskatoon, Saskatchewan, Canada: 4-H Department.
- Kagan, J.(1971). Personality Development.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Katkovsky, W., Crandall, V. C., & Good, S.(1967). Parental antecedents of children's beliefs in internal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s in intellectual achievement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38, 765-776.
- Linden, J. A., & Fertman, C. I.(1998). *Youth Leadership: A Guide to Understanding Leadership Development in Adolescents*. San 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s Inc.
- MicKinley, B. G., Birkenholz, R. J., & Stewart, B. R.(1993).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related to the leadership skills of agriculture students in college.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4(2), 76-83.
- Miller, J. P.(1991). Four-H and non-4-H participants' development of competency coping, and contributory life skills.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Miller, J. P., & Bowen, B. E.(1993). Competency, Coping, and Contributory Life Skills Development of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1(1), 68-76.
- Miller, R. A.(1975). Life skills for 4-H leadership ro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Oklahoma State University.
- Miller, R. A.(1976). *Leader/agent's guide: Leadership and life skills*. Stillwater: Oklahoma State University.
- Morris, J. C.(1996).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4-H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Mullen, D.(1981).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life skills program.

Prepared for Employment Support Services Branch. Canada Employment and Immigration Commission, Toronto: Guidance Centre, Canada EO #218438.

Pigg, K. E., & Meyers, J. M.(1980).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 of the 4-H program: Finding and implications of the final evaluation report. Washington, DC: Extension service-USDA.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Seevers, B. S., & Dormody, T. J.(1995). Predicting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among FFA members in Arizona, Colorado, and New Mexico.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5(2), 65-71.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Walter, S., & Stinnett, N.(1971). Parent-child relationships: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

Walter, S., & Walter, L. H.(1980). Parent-child relationships: a review, 1970-197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Weatherford, D. & Weatherford, C.(1985). A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found in selected experiential education, life skills development and 4-H program impacts literature Raleigh: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Wingenbach, G. J.(1995)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FFA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부 록

1. 부모양육행동 측정 척도
2.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측정 척도

설문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평소에 여러분이 부모님과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르듯이 여러분들의 생각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는 틀리고 맞는 답이 없으며, 학교성적이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한 사람의 비밀은 절대 보장될 것이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들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문항을 읽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 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저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연구자 : 임재생

지도교수 : 이희영

※ 성별은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 성별 : 남(), 여()

부록 1. 부모 양육행동 측정 척도

아버지는 왼쪽에, 어머니는 오른쪽에 구분하여 그 정도에 따라 V표해 주되, 어머니와 아버지 중 어느 한 분이 안 계시면 계시는 분만의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아버지				문 항	어머니			
전혀 아니 다	다소 아니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아니 다	다소 아니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셨다.				
				2.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었다.				
				3.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4.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하셨다.				
				5.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6.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다.				
				7.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정도 이상으로 벌을 주셨다.				
				8. 나보다는 바깥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9.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10.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야단을 안 치셨다.				
				11.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12.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셨다.				
				13.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아버지				문 항	어머니			
전혀 아니 다	다소 아니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아니 다	다소 아니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4.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 하셨다.				
				15. 내가 잘못하면 때부터 드셨다.				
				16.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었다.				
				17. 내가 밤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18.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셨다.				
				19.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20. 내가 알아서 할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까지 잔소리 하셨다.				
				21. 나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2.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23. 작은 잘못에도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24.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다.				
				25.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셨다.				
				26.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태도가 평소와 달라 지셨다.				
				27.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셨다.				
				28.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았다.				
				29.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러웠다.				

아버지				문 항	어머니			
전혀 아니 다	다소 아니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아니 다	다소 아니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0.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셨다.				
				31. 화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심하게 때리셨다.				
				32.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으셨다.				
				33.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셨다.				
				34.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35.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었다.				
				36.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37. 너무 걱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었다.				
				38.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다.				
				39.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40.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하다고 못하게 하셨다.				
				41.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 주셨다.				
				42.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				
				43. 나에 대해 덜 걱정하셨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부록 2.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측정 척도

다음 질문에 대해 자신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나는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나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나는 적절한 유머를 구사할 줄 알고 항상 웃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목표설정을 잘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처리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적절한 것을 잘 선택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각 구성원에게 책임을 맡기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나는 직접적 명령보다는 요청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나는 어떠한 변화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다음 질문에 대해 자신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p>	매 우 그 렇 다	그 렇 다	보 통 이 다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7.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 할 줄 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나는 어떤 지식이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나는 어떠한 일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나는 내가 한 실수를 잘 수습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나는 일 처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나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고려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나는 내가 속한 집단 성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잘 수용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0.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집단의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